

#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생활시설의 공간구성과 이용실태 연구

- 경기도 지역의 카네이션하우스 6개 시설을 중심으로 -

## A Study of Space Composition and Usage Pattern of Shared Living Facilities for the Solitary Elderly

- Based on the Six Carnation Houses in Gyeonggi Province -

**Author** 문자영 Moon, Ja-Young / 정회원, 한양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박사과정  
신경주 Shin, Kyung-Joo / 편집이사, 한양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교수, 학술박사\*

**Abstract** This research is about shared living facilities for the solitary elderly in Gyeonggi province (so called "Carnation House"), which was opened after 2013. These facilities aim to help solving the social problems of the growing number of the solitary elderly. The research was conducted from April 2014 to October 2014 by using observation, measurement, photography, and interview methods. This research reviewed floor plan, area, accessibility, visual openness, and furniture and equipm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nsidering the need for rest are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livingroom should at least be equipped with a variable wall or have a separate room. Secondly, for the kitchen plan, considering the fact that large number of people move simultaneously, kitchen entrance should be widened or LDK type is preferable. Thirdly, the bathroom entrance should be widened to at least 800mm and should have barrier free design. Fourthly, porch entrance should be planned to secure enough space and shoe cabinets for multiple users. Fifthly, to allow the users to enjoy outside view, the windows of living spaces should be placed no higher than 800mm from the floor level. Finally, for the location of the facility, people prefer the location be at the center of the village or near home. In addition, location with easy accessibility for the elderly is advisable. Therefore, establishing local guidelines for shared living facilities for the solitary elderly is advisable. When establishing local guidelines, local characters, culture and usage patterns should be considered.

**Keywords** 독거노인, 노인공동생활시설, 공간구성, 이용실태  
The Solitary Elderly, Shared Elderly Living Facilities, Space Composition, Usage Pattern

## 1. 서론

우리나라는 2000년 기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의 가구 구성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 인구추계(2006년~2030년까지)에서 총인구는 2018년까지 증가하다가 2019년부터 감소하나, 반면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06년 전 인구의 9.6%에서 2030년에는 24.3%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sup>1)</sup>

그 중 두드러진 특징이 1인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독거노인의 체노인 수는 2013년 5,022만명으로 2008년의 1.03배, 2030년은 1.07배 증가가 예측되는데 비하면 독거노인의

증가가 두드러진다.<sup>2)</sup> 이처럼 홀로 사는 독거노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우울증, 소외감, 자살률 증가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이나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개·보수하여 독거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며,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생활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생활시설은 전라남도에서 2004년 전국 최초로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 설치사업'이 시작되는데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과 여가, 경제적 문제까지 해소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어 점차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kjshin@hanyang.ac.kr

1)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제 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 의료 현황과 전망, 2007. p.7  
2) 보건복지부, 2014 보건복지통계연보 60호, 표1-1-1. 총인구, 성비 및 인구성장률 추이; 1970-2060 p.3; 표5-7-1 독거노인수; 2008-2013 p.337

전국적으로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sup>3)</sup> 4) 이처럼 이 제도는 노인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데 현재는 전북, 충북, 경기도, 울산 등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에 대한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sup>5)</sup>. 그러므로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공동생활시설이 이들을 위한 유용한 공간대안으로 앞으로도 그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이 시설과 관련된 기준의 부재로 그 역할과 용도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미흡하다.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공동생활시설은 노인들에게 장소제공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안락감과 여가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점차 사회와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독거노인 수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들을 위해서 지자체가 기존 건물 등을 리모델링하여 독거노인들이 함께 생활 할 수 있도록 한 사례들을 연구하여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의 실내공간계획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조사대상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경기도 지역에서 2013년 이후에 시범 실시된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공동생활시설로 한정한다. 연구내용은 대상 공동생활시설의 간략 평면도를 제시하며, 이를 통하여 실내 공간구성을 검토한다. 또한 실내의 실측조사와 현장관찰을 통해서 이용자의 사용실태를 파악한다. 이 연구결과가 향후 보다 바람직한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공동생활시설의 신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기본 자료로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 용어정의 및 선행연구 동향

### 2.1.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정의

지·자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독거노인의 공동생활지원 사업이 전라남도에서는 ‘공동생활의 집’으로, 충청남도에서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로, 김제에서는 ‘한울타리 행복

의 집 사업’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중시하는 점에 따라서 그 사업명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독거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며,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동일목표를 갖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은 이러한 각 지역에서의 독거노인을 위한 사업명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즉,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이란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독거노인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어떠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설치하는지에 대해서는 각 지역마다 그 설치기준의 차이를 인정한다.

### 2.2.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관련법규

각 지역에서의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의 대상지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충청남도에는 기존 주택의 경우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떨어진 주택을 선정해야 하는 기준이 있다. 김제시는 노유자 시설설치 가능지역과 독거노인 수가 많고 입주희망 노인이 10명 이상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sup>6)</sup> 경기도는 대상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확실치는 없으나, 건축물 소유주가 그 건물을 시군의 소유로 하는 것에 동의해야 가능한 조건이 있다.<sup>7)</sup>

다음은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의 기능을 살펴보면, 이곳은 독거노인들의 건강 및 쉼터, 숙식, 여가, 일자리 작업제공을 하는 곳이었다. 이 기능에 유사한 시설은 경로당<sup>8)</sup>으로 이곳은 노인복지법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속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7와 별표8에서 이용자 수와 갖추어야 할 설비를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 양로원(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하나)도 있는데 이곳은 입소 정원이 경로당의 1/2인 10명으로 침실과 요양보호사를 갖추어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별표2). 노인공동생활가정<sup>9)</sup>(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하나)은 입소정원이 5명 이상 9명 이하인 점이 양로원과 다르나 침실과 요양보호사를 갖추어야 하는 점은 마찬가지로이다. 그 외 노인그룹홈<sup>10)</sup>과 노인공동생활가정도 있으나 이 두 곳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하나인 점이 다르다.<sup>11)</sup>

3) 김제시는 2006년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독거노인들이 어울려 생활하는 가정이라는 뜻으로 ‘한울타리 행복의 집’ 사업을 시작했다. 이곳은 낮에는 노인들의 쉼터로 이용하고, 밤에는 ‘노인그룹홈’으로 명명하여 10인 이하 노인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었다; 아시아뉴스통신(<http://www.anews.com/>), 2013.11.28

4) 충청남도는 마을회관과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2010년부터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4년 현재 29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이곳은 독거노인들의 건강 유지와 긴급 상황대처 및 보건·의료 방문서비스의 연계효과를 높이고 있었다; 웰케어 뉴스, (<http://www.welfarenewSNet>), 2010.5.22

5)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공동생활시설은 지역마다 거주 유무에 대한 차이가 있으나, 보통 5-20 명 내외의 독거노인이 모여 함께 여가를 보내고 식사, 오락, 소일거리,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은 기존시설의 개·보수를 통해서 공동생활 기능을 제공하므로 냉·난방비 걱정이 없고, 규칙적인 식사가 어려운 독거노인은 이곳에 모여서 가족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소외감을 줄이고 안전사고 및 위급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대응 받을 수 있었다.

6) 남윤철, op. cit., p.59

7) 유병선, 김나연,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경기복지재단, 2014.1, p.53

8) 경로당은 이용자가 20명 이상이고, 화장실, 거실(휴게실), 전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거실(휴게실)이 20㎡ 이상이 되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7), (별표8), 법제처, 2014.

9) 양로시설은 입소정원이 10명 이상이고,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여야 하며, 공통적으로 침실과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 (별표3)

10) 노인그룹홈은 대규모시설과 제가의 중간적인 성격의 소규모 노인 입소시설로서, 10인내의 노인이 가정적 환경에서 공동 거주하는 형태이다. 한국생활과학학회지, 제18권 4호, 2009, pp.842-843

11) 문자영, 신경주, 경기도 지역 ‘카네이션 하우스’의 공간현황 및 특성,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6권 2호, 2014.11, p.180

그런데 독거노인공동생활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은 없다. 또한 위에서 검토한 유사시설에 관한 기준이 독거노인공동생활시설에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법이 정립되어 명확한 시설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3. 선행연구 동향

독거노인 공동생활 시설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새로운 연구영역으로 2010년에 대두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 2010년에 처음 실시한 농어촌 지역 주거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주거모델개발 연구에서는 마을회관 활용형태 및 노인공동주택 사례 등을 국내와 일본의 사례들을 조사·분석하여 농어촌 공동생활 홈 평면 유형을 제안하였다. 2011년에는 충남지역에서 ‘독거노인 공동생활계’ 시범사업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곳의 이용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취약계층의 거주 환경을 고려한 공동생활 주거 방식의 대안을 모색하였다.<sup>12)</sup> 조원석,김흥기(2012)는 에이징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의 관점에서 자활이 가능한 농어촌 지역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상태에 따른 공동주거에 대한 선호경향을 분석하였다.<sup>13)</sup> 남윤철(2012)은 독거노인의 공동생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업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독거노인공동주거 시설계획 시는 노인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내·외부 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배리어프리 등을 고려한 리모델링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sup>14)</sup>

그간의 연구는 실태조사, 개선방향, 모델개발, 선호경향 연구 등이 이루어져 왔으나 대부분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초기에 지어진 시설들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노인공동생활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실내공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공동생활시설의 실내공간구성과 이용자의 이용실태에 중점을 둔 연구를 시도한다.

## 3. 조사방법

### 3.1. 조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와 3단체(경기농협지역본부·대한노인회·경기도연합회)가 협약하여 사업을 추진·설치한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6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sup>15)</sup> 현재

2014년 10월 기준 총 9개의 카네이션 하우스가 운영 중에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처음 개소한 AY시설(2013년 개소)을 포함하여 2014년 9월까지 리모델링이 완료된 시설 중, 협조를 얻은 6개 시설로 <표 1>에 조사대상 시설의 외관 사진과 함께 개관일, 건물의 위치, 규모, 면적, 유형, 운영시간 등 분석에 필요한 개요를 제시한다.

<표 1> 조사대상 시설의 개요

명칭	외관	위치	개관	규모 형태	면적 (평)	유형	운영 (시)	유형 (형)
SN		성남시	2014. 9	3층 부속 형태	21평	기존 기타 시설 활용형	09~18	도시
KM		광명시 광명3동	2014. 7	2층 단독 주택	26평	기존 경로당 활용형	07~18	도시
YJ		여주시 외동리	2013. 11	1층 단독 주택	21평	기존 마을회관 활용형	09~18	농촌
IC		이천시 고당리	2013. 12	1층 단독 주택	27평	기존 마을회관 활용형	10~19	농촌
AY		안양시	2013. 7	1층 단독 주택	20평	기존 청소년 공부방 활용형	09~18	도시
YC		연천시 청산면 초성2리	2013. 11	1층 부속	15평	기존 마을회관 활용형	09~18	도농복합

### 3.2. 조사 내용과 방법

조사내용은 공동생활시설의 평면을 통하여 각 실의 공간구성, 실별 면적, 문과 창고 폭과 높이, 실내 구비가구 및 기구의 종류와 위치, 바닥의 단차 등을 조사한다. 또한 실내의 관찰조사와 운영자 및 이용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공동생활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회원의 수와 이용가능시간, 각 실의 이용실태 등을 조사한다.

조사방법은 실내관찰과 실측조사, 사진촬영, 면담조사로 2014년 4월~10월에 진행했다. 연구자가 조사대상 시설을 방문하여 운영자 면담을 통해 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회원 수와 운영방법, 운영시간 등을 조사했고, 이용자 면담에서는 시설 이용실태 및 선호도를 조사했다. 2시간 정도의 관찰 및 사진촬영을 통해서 이용자의 각 실 이용실태도 조사했다. 이때 레이저 측정기를 이용하여 각 실의 문 폭과 창문 높이, 바닥의 단차, 각 실별 치수 등도 실측했다.<sup>16)</sup>

12) 박현준, 김승근 외1인, 농어촌 독거노인 공동생활주거 실태조사연구; 충남지역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 제13권 2호, 2011.5

13) 조원석, 김흥기, 농어촌 독거노인의 공동주거 선호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3권 4호, 2012.11;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 제13권 4호, 2011.11

14) 남윤철, 농촌지역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사례와 개선 방향, 한국농촌건축학회, 제14권 2호, 2012.5

15) 카네이션하우스는 경기도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에 시행한 독거노인 종합보호대책인 ‘독거노인 수호천사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기존의 마을회관이나 기타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생활 공간 등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건강관리, 여가프로그램 운영, 상담 및 일자리 사업을 통해 노인들이 건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16) 조사대상 시설의 명칭은 시설의 프라이버시를 감안하여 영문 머리

## 4. 조사결과 및 분석

### 4.1. 공간구성 특성

#### (1) 평면구성

조사대상 시설의 평면과 함께 유형을 분류하여 <표 2>에 제시한다. 평면의 유형 분류는 거실과 방의 유무 및 공간의 배치특성에 따라서 거실형은 원룸형으로, 전면에 거실과 주변에 방을 가진 경우는 거실+방형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원룸형이 2시설, 거실+방1형이 2시설, 거실+방2형, 거실+방3형이 각각 1시설로 구분 되었다.

<표 2> 조사대상 시설의 평면도

시설	SN	KM	YJ
평면도			
유형	원룸형	원룸형	거실+방1형
정원	20	제한없음	20
시설	IC	AY	YC
평면도			
유형	거실+방1형	거실+방2형	거실+방3형
정원	주로 이용하는 노인 수 15명	30	6명 (현재 입주자 2명 거주)

각 시설의 특징을 살펴보면 원룸형 시설(SN, KM)은 거실, 부엌, 화장실, 현관으로 구성되며, 거실의 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으로, 이중 SN은 L/DK형, KM은 LDK형이었다. 거실+방1형(YJ, IC)은 거실과 방이 나란히 있는 형으로 거실, 방1개, 부엌, 화장실, 현관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YJ는 부엌을 방으로 겸용하여 남자과 여자의 사용을 분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거실+방2형(AY)은 거실을 중앙에 두고 방이 좌우 대칭으로 배치된 평면으로, 거실, 방2개, 부엌, 화장실, 현관으로 구성되어 다른 유형에 비해 각 실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거실+방3형(YC)은 거실을 전면에 두고 방이 거실을 둘러싸고 후면까지 배치된 평면으로 거실과 방3개, 보일러실로 공간이 구성되고, 화장실과 부엌은 외부에 두어 마을회관 이용자와 공동으로 사용했다.

#### (2) 면적구성

조사 대상 시설의 각 공간별 면적을 <표 3>에 제시한다. 이를 살펴보면 전체면적은 원룸형(SN, KM)은 각각 76.9㎡, 75.6㎡로 비슷하며, 다른 유형에 비해 면적이 컸

글자로 제시한다.

다. 거실+방1형은 각각 63.2㎡, 64.6㎡로 비슷하며, 거실+방2형은 57.5㎡, 거실+방3형은 58.5㎡로 방이 많은 경우의 전체 면적이 작았다. 즉, 원룸형이 76.9㎡(SN)로 가장 컸고, 거실+방2형(IC)이 57.5㎡로 가장 작아서 약 1.5배 정도의 면적 차가 있었다.

<표 3> 조사대상 시설의 공간별 면적 (단위:㎡)

구분	거실	방1	방2	방3	부엌	화장실	현관	전체
SN (원룸형)	48	-	-	-	20	3.7	5.2	76.9
KM (원룸형)	55.6	-	-	-	7.8	8.1	4.1	75.6
YJ (거실+방1형)	26.3	15.5	-	-	13.7	5.4	2.3	63.2
IC (거실+방1형)	23.7	17.4	-	-	15.3	5.3	2.8	64.6
AY (거실+방2형)	18.6	13.2	14.2	-	7.4	2.8	1.3	57.5
YC (거실+방3형)	27.4	9.4	11.9	9.8	-	-	-	58.5
평균	33.3 (50.5%)	13.1(19.8%)			12.8 (19.4%)	5.1 (7.7%)	3.1 (4.7%)	66 (100%)

- : 해당 공간 없음

평면 유형별 면적은, 원룸형의 경우 거실면적 비중이 큰데, SN은 부엌이 20㎡로 비교적 크며, 화장실이 3.7㎡로 매우 작았다. 거실+방1형은 YJ, IC 모두 거실이 각각 26.3㎡, 23.7㎡로 비중이 높고, 방이 그 다음으로 넓으며, 다른 유형에 비해 부엌도 넓었다(13.7㎡, 15.3㎡). 거실+방2형은, IC는 거실이18.6㎡로 중앙에 위치하고, 방은 각각 13.2㎡, 14.2㎡로 면적이 작았고, 특히 부엌이 7.4㎡로 매우 공간이 협소했다. 거실+방3형은, YC는 거실이 27.4㎡로 면적비율이 가장 높고, 방은 각각 9.4㎡, 11.9㎡, 9.8㎡로 면적이 비슷했는데 이 사례는 부엌과 화장실이 외부에 있어서(마을회관 이용자와 공동이용) 조사대상 평면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각 공간별 면적은 모든 사례가 거실이 가장 넓은데 최대 48㎡~최소 18.6㎡로 두 배 이상 차가 났으며, 평균 33.3㎡이었다. 부엌은 원룸형(KN)이 20㎡로 가장 넓고, 최소 7.4㎡(IC; 거실+방2형)로 약 3배차가 났고, 평균 12.8㎡로 전체 면적 비중 19.4%였다. 화장실은 최대 8.1㎡(KN; 원룸형)에서 최소 2.8㎡(IC; 거실+방2형)로 약 4배차가 났으며, 평균 5.1㎡로, 전체 면적 비중 7.7%였다. 현관은 최대 5.2㎡~최소 1.3㎡로, 평균 3.1㎡이며 전체 면적 비중 4.7%를 차지하였다.

#### (3) 접근성 및 시각적 개방성

조사대상 시설의 각 시설별 공간 접근성과 시각적 개방성을 문 폭, 인접 공간과의 단차, 문 높이 등으로 조사하여 <표 4>에 제시한다.

<표 4> 조사대상의 공간 접근성과 시각적 개방성 (단위:mm)

구분	공간	SN (원룸형)	KM (원룸형)	YJ (거실+방 1형)	IC (거실+방 1형)	AY (거실+방 2형)	YC (거실+방 3형)			
수평적 접근성	문 폭	현관	1750	850	900	850	920	750		
		방			810	840	870	820		
		부엌	800	-	800	-	600	800		
		화장실	830	830	710	830	830	750		
		사무실	950			-	870			
수직적 접근성	바닥 단차	현관	110	40	180	0	20	150		
		방			10	110	0	10		
	바닥 높이	부엌	0	0	10	0	0	10		
		화장실	20	10	170	140	0	100		
	문 높이	현관	2100	2150		2040	2370	2100		
		방			2013	1990	2010	2000		
		부엌	1940	1800	2013	2370	2000	2000		
		화장실	2060	1965	1710	1990	2010	1900		
		창문 높이 (시각적 개방성)	방	바닥에서 높이			800	0	880	850
				창 넓이			1400	1750	2460	1400
창 높이					1200	1960	1130	1300		
거실	바닥에서 높이		1050	0	800	780	470	850		
	창 넓이		1900	2350	1400	1400	4170	1900		
	창 높이		1400	2140	1200	1370	1960	1400		
부엌	바닥에서 높이	880	-	830	900	880	900			
	창 넓이	1950	-	1400	1030	1180	1799			
	창 높이	1400	-	1200	310	616	1350			
화장실	바닥에서 높이	-	850	1600	1360	1230	1500			
	창 넓이	-	810	600	870	800	800			
	창 높이	-	950	450	480	400	450			

■ : 해당 공간 없음, - : 미설치

문 폭은 YJ, YC는 화장실 문 폭이 800mm이하로 좁았고, IC는 부엌 문 폭이 600mm, YC는 현관 문 폭이 750mm로 매우 좁았다. 보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노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게 각 실의 문 폭은 최소 800mm 이상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내 인접공간과 단차(바닥높이 차)는, 부엌은 대부분 문턱이 없거나 10mm미만으로 보행에 그리 문제는 없었다. 원룸형은 부엌 출입문이 따로 없었고, 거실+방형 역시 YJ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엌에 출입문이 없었는데 이것이 문턱 제거 효과를 보였다. 현관은 단차 180mm~문턱이 높은 곳까지 있었다. SN, YJ, YC는 모두 바닥 단차가 100mm이상으로 수직적 접근성이 미흡했다. 특히 YJ는 바닥 단차가 180mm로 높아서 보행기 이용자나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의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장실 역시 바닥 단차가 없는 곳부터 170mm 차가 있는 곳까지 그 차가

있었다. YJ는 단차 180mm로 수직적 접근성이 매우 미흡하여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다.

창문은 거실은 노인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창문의 중요성이 큰데 SN을 제외하고 모두 800mm 이하의 창문높이로 좌식생활의 경우도 시각적인 개방성이 있었다. 특히 사례 KM, AY은 바닥에서의 창문높이가 각각 0mm, 470mm, 창문넓이 역시 각각 2,350mm, 4,170mm로 다른 사례보다 낮고 넓은 창으로 개방성이 아주 좋았다. 방의 창문높이는 원룸형은 방이 없어 해당이 없고, 방이 있는 경우는 IC를 제외하고 모두 800mm 이상으로 거실보다는 다소 개방성이 낮았다. 그러나 IC는 방에 베란다가 설치되어 베란다 창이 창문역할을 하므로 실내에 앉아 밖을 볼 수 있는 개방성은 가장 컸다. 부엌은 KM은 창문이 없고(외부조망 불가능), 나머지는 모두 바닥에서 800mm이상 높이에 창이 설치되어 서서 작업할 때만 외부조망이 가능했다. 그러므로 창문 높이를 낮추어서 외부조망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4) 보유가구와 기구의 종류

조사대상 시설의 각 실별 보유가구와 기구를 조사하여 <표 5>에 제시한다.

<표 5> 조사대상 시설의 실별 보유가구 기기 종류와 개수

구분	공간	SN (원룸형)	KM (원룸형)	YJ (거실+방1형)	IC (거실+방1형)	AY (거실+방2형)	YC (거실+방3형)	시설수 (합계)	
현관	신발장	1	1	1	1	1	1	6	
	보조의자	0	0	0	0	0	0	0	
테라스	테이블	1	1		1	2		4	
	운동기구(싸이클)	0	2		0	0		1	
거실	소파	3	4	2	0	0	1	4	
	TV	1	1	1	1	1	1	6	
	TV장	1	1	1	1	1	1	6	
	수납장	1	0	0	2	0	0	2	
	개인수납장	20	0	0	0	0	0	1	
	옷장	1	0	1	0	0	0	2	
	안마기	0	0	0	1	0	1	2	
	에어컨	1	1	0	1	1	1	5	
	방	수납장			1	1	2	3	4
		개인수납장			0	0	10	0	1
옷장				1	2	1	3	4	
행거				0	0	2	3	2	
이불장				0	1	1	1	3	
테이블(책상)				0	0	5	1	2	
운동기구(싸이클)				1	1	0	0	2	
부엌	에어컨			0	0	1	0	1	
	싱크대	1	1	1	1	1	1	6	
	수납장	1	1	1	1	1	1	6	
	선반	0	0	0	1	1	1	3	
	세탁기	0	0	0	0	1	1	2	
	정수기	1	1	0	1	1	1	5	
	냉장고	1	1	1	1	1	1	6	
	김치냉장고	1	1	1	1	0	1	5	
	살균소독기	1	0	0	0	0	0	1	
	화장실	세면대	1	2	0	1	1	2	6
양변기		1	2	1	1	1	2	6	
소변기		0	0	0	1	0	0	1	

■ : 해당 공간 없음

현관에는 모든 시설에 신발장이 있으나 보조의자가 없었다. 노인들이 신발 신기 편하게 보조의자가 필요하였다. 테라스는 시설 4곳에 있고, 모두 테이블을 놓아 노인들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운동기구는 한 곳(KM)만 있고, 실내에는 YJ, IC 두 곳으로 설치장소에 차가 있었다. 거실에는 모든 시설에서 TV와 TV장이 있어 휴식 시 노인들이 TV를 보고 있었다. 그 밖에 거실에는 수납장, 개인수납장, 옷장, 안마기, 에어컨이 있었는데 그 설치 유무와 수는 시설마다 차가 있었다. 특히 원룸형인 SN은 거실에 개인수납장을 두어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했고, 에어컨은 YJ를 제외한 모든 시설에 설치되어 있었다. 방에는 원룸형을 제외한 4시설 모두 수납장과 옷장이 설치되어 노인들의 옷과 짐을 수납하도록 했다. 이중IC는 방에 개인수납장을 두어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확보했고, 방에도 에어컨이 있어 거실처럼 사용가능했다. 부엌에는 모든 시설에서 싱크대와 수납장, 냉장고를 갖추고, 선반과 세탁기, 정수기, 김치냉장고, 살균소독기는 시설별로 설치 유무에 차가 있었다.

화장실에는 모든 시설에 양변기가 있고, 소변기는 IC 시설에 되어 할머니의 이용률이 높은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였다. 세면대는 YJ를 제외하고 모두 설치되었는데, 그 수는 1개 혹은 2개로 차가 있었다. 공간이 허용하면 개인수납장과 세면대의 설치가 좋은 환경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 4.2. 운영 방법과 실별 이용실태

### (1) 운영방법

조사대상 시설의 운영 방법과 이용시간, 거주가능 유무는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시설운영은 대부분 이장이나 통장·부녀회장 등 마을 대표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이용방법은 생활근거지는 기존 개인주택에 두고, 오전부터 저녁까지 취사와 휴식 및 일을 위한 작업공간으로 시설을 이용하였다. 이용자 수는 보통 20명 내외의 독거노인들이 대상시설에 등록하여 이용하고 있었는데, YC는 3명의 독거노인이 등록하여 주거지로 이용하고 있어 다른 시설과는 달랐다.

### (2) 실별 이용실태

#### (A) 거실

거실은 노인들이 모여 TV를 시청하거나 휴식, 일자리, 작업용도로 이용하였다.<그림 1>

원룸형은 노인들 대부분이 거실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거실에 긴 소파를 두어서 신체 특성상 앉아서 생활하는 것이 불편한 노인들이 누워서 이용하기에 적합했다. SN, KM은 노인들이 함께 오락을 즐기거나 소일거리 작업시도 바닥에서 좌식생활을 하여 이용방식에 차가 있었다.



<그림 1> 조사대상의 거실 이용실태

#### (B) 방

거실+방형에서 방은 주로 작업장, 수납공간,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그림 2>

방에서는 모든 시설에서 소파 대신 좌식생활을 하고 있었다. IC, YJ에서는 이곳에 운동기구를 두어 노인들이 여가로 운동을 즐기게 했다. 또한 부엌에서 사용하는 물품인 접이식테이블, 냉장고 등을 방에 두어 공간이 부족한 부엌의 연장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IC, YJ, IC)도 3시설 있었다. 대부분의 시간을 거실에서 보내고 방은 가끔 휴식을 취하거나 창고겸용으로 사용하는 시설(YJ)도 1곳 있었다.



<그림 2> 조사대상의 방 이용실태

#### (C) 부엌

부엌은 거실과 개방형으로 배치된 시설이 2곳, 별도의 독립된 실로 된 시설이 4곳이었다.<그림 3>



<그림 3> 조사대상의 부엌 이용실태

기본적으로 모든 대상시설에 싱크대가 설치되었으나,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싱크대와 최소한의 수납 선반만을 갖춘 곳도 있었다(IC). 또한 부엌이 외부에 있어 거실과 함께 간이로 사용하는 곳(YC)도 있었는데, 미니 냉장고와 간단한 취사도구를 두어 간단한 요리에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외부보다는 내부에 부엌이 별도로 설치



된 편이 이용이 편하다 판단되므로 이를 권한다. SN은 부엌에 보일러가 설치되었는데, 주로 부엌은 요리를 하거나 설거지 공간으로 활용하고, 식사는 거실에서 좌식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었다.

(D) 화장실

화장실은 YC를 제외하고 모든 시설에서 내부에 설치되어 남녀공용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YC시설은 화장실이 외부에 있어 노인들이 이동하기에 불편함이 있었다.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IC, SN 시설뿐이나, 양변기는 전 시설에 설치되어 있었다.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IC 뿐으로 남자 이용률이 적어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세면대는 YJ를 제외하고 모두 설치되었으며, 그 수는 1개 혹은 2개로 차이가 있었다. 욕조는 모든 시설에 설치되지 않았는데 이는 이용자들이 샤워를 하지 않는 것에 따른 결과로 보였다. KM 시설은 양변기가 2개 설치되었고, 내부 화장실 문이 접이식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YJ는 출입문 폭이 좁고, 문턱이 높아서 노인들의 이용 시에 보행에 불편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그림 4> 조사대상의 화장실 이용실태

(E) 현관

현관문은 대부분 여닫이문과 미닫이문으로 되어 있었으며, KM 시설은 현관문이 두 개 설치되어 이용자들이 선택하여 출입할 수 있었다.



<그림 5> 조사대상의 현관 이용실태

SN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현관문의 출입 폭이 좁고, 현관면적이 작아 보행기의 이용과 신발을 넣기에 공간이 협소하였다. 또한 YC는 신발장이 현관과 멀리 떨어져

어진 곳에 위치하여 신발을 밖에 벗어 놓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분실의 위험성도 있었다. 문턱이 다소 높은 YC, IC는 보행이 불편한 노인이 이용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

4.3. 이용자의 선호도 조사

조사대상 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의 면담 조사를 통해 각 실별 선호양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한다.

<표 6> 조사대상 이용자 면담조사

N=53

항목		구분	f(%)	
사회인 구적 특성	성별	남	3(5.7)	
		여	5(94.3)	
	연령	60대	2(3.8)	
		70대	29(54.7)	
80대		19(35.8)		
90대		3(5.7)		
선호 생활 양식	방	좌식 온돌	37(70)	
		침대	5(9.4)	
		아무거나	11(20.8)	
	거실	좌식 온돌	19(35.8)	
		소파	34(64.2)	
		아무거나	6(11.3)	
	부엌	식탁	19(35.9)	
		좌식 밥상	31(58.5)	
		아무거나	7(13.2)	
	화장실	세면대	설치 선호	26(49.1)
			상관없다	27(50.1)
		욕조	설치 선호	10(18.9)
상관없다			43(81.1)	
위치	경로당 옆	7(13.2)		
	보건소 옆	10(18.9)		
	마을중심	32(60.4)		
	집 가까운 곳	1(1.9)		
	상관없다	3(5.7)		
숙박 선호	숙박 가능	희망 한다	18(34)	
		1명	1(5.6)	
		5명 이하	3(16.7)	
		5~10명	13(72.2)	
		상관없음	1(5.6)	
희망하지 않음	35(66)			

면담 조사자 수는 총 53명인데, 각 시설별 10명씩이며, YC시설(늦게 개소함)만 3명이다. 응답자를 분석하면 3명을 제외한 50명(94.3%)이 여성으로 대부분의 이용자가 할머니였다. 응답자의 연령은 70대가 54.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80대가 35.8%였으며, 60대(5.7%)와 90대(3.8%)는 적었다.

각 실별 선호생활양식은 방은 좌식 온돌생활 선호가 70%로 가장 높았으며, 침대 생활은 9.4%로 가장 선호도가 낮았다.

거실은 소파이용 입식선호가 64.2%로 가장 높았고, 좌식 생활이 35.8%로 그 다음이었으며, 상관없다는 응답이 11.3%였다. 부엌은 대부분의 시설에서 좌식 밥상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좌식 선호가 31명으로 58.5%, 식탁 선호가 35.9%로 좌식선호가 비교적 높았으며, '상관없다'는 응답도 13.2%있었다. 화장실

은 세면대와 욕조의 설치여부에 관한 선호조사에서 세면대 설치 선호가 49.1%, 상관없다가 50.1%로 양자에 차가 없었다. 욕조는 설치 선호가 18.9%, 상관없다가 81.1%로 욕조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답이 높지 않았는데 이는 이곳에서 모든 생활을 하지 않고 개인 집을 병행 이용하기 때문으로 여겨졌다. 시설 위치에 대한 선호는 마을 중심을 선호하는 응답이 60.4%로 가장 높았고, 보건소 옆이 18.9%, 경로당 옆이 13.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상관없다는 응답이 5.7%, 집 가까운 곳(기타 의견)이 1명 있었다. 숙박 가능에 대한 선호는 숙박을 희망하는 응답이 34%, 희망하지 않음이 66%였다. 또한 숙박을 희망하는 이용자의 경우 숙박 시 함께 생활하는 인원수는 5~10명이 72.2%로 가장 높아 숙박을 고려한 운영을 생각한다면 평상 시 이용자1/3 정도의 숙박을 염두에 두고, 방당 7명 전후로 계획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 4.4. 소결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공동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의 평면을 통한 평면분석과 함께 실내의 관찰조사와 운영자 및 이용자와의 면담 조사를 하며 이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평면유형은 원룸형과 거실+방형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원룸형의 전체 시설면적이 가장 넓고, 거실+방1형, 거실+방3형, 거실+방2형 순으로 면적이 좁아졌다. 실별 면적은 모든 시설에서 거실면적이 가장 넓고, 원룸형은 방이 있는 시설보다 두 배 이상 면적이 넓었다. 이는 이용자들이 하나의 넓은 공간을 다용도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활동이 혼재하여 편안한 휴식이 어렵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확보되지 않는 단점이 있었다. 실제로 휴식을 취하는 노인과 여가 오락을 즐기는 노인들이 함께 겸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프라이버시 확보 및 가변적인 공간분리가 요구되었다. 그러므로 거실면적을 확보하면서 방을 함께 배치하여 공동작업이나 여가는 거실에서, 휴식은 방에서 이루어지게 계획하기를 권한다.

둘째, 조사대상 시설의 부엌은 식사는 거실이나 방에서 좌식 테이블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이유는 부엌이 협소하여 많은 인원수의 노인들이 함께 식사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부엌 수납공간을 확보하여 거실로의 이동이 용이하게 입구 폭을 넓히고, 개방성을 주어 계획하기를 권하며, LDK형이 이용하기 무난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셋째, 화장실은 실내에 위치하는 것이 당연하나 한곳이 외부에 위치하여 부적절하므로 적절한 보완이 필요하였다. 화장실의 경우 남녀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이 대부분이나 이용자 대부분이 여성으로 이에 대한 불편이 크지 않게 보이나, 숫자가 늘면 분리도 고려하도록 한다.

또한 문 폭이 800mm이하이거나 단차가 100mm이상인 곳이 있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문 폭을 넓히고, 단차를 낮추는 계획이 기대된다.

넷째, 현관은 대부분 면적이 좁아서 신발보관과 착·탈이 불편하고, 문턱이 높아 보행기 접근이 어렵고, 보조의자가 없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였다.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이용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과 신발장을 확보하며, 사용하기 편한 위치에 배치하도록 한다.

다섯째, 거실은 창 높이가 800mm이하여야 앉아서 외부를 조망할 수 있으나, 대상 시설은 창문이 다소 높아서 좌식생활 하는 노인의 시각적인 개방성이 미흡하였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거실과 방의 창문은 그 높이를 800mm이하로 하고, 면적에 적합한 개수의 창문을 설치하도록 권한다.

여섯째, 이용실태 조사에서 시설이용 노인들의 생활근거지는 기존 주택으로 노인공동생활시설은 오전에서 저녁사이 주5일 이용하며, 주로 거실을 이용하였다. 이곳에서는 공동작업, 여가, TV시청, 담소를 주로 하였다.

선호도 조사에서 거실은 좌식의 온돌생활이나 소파생활의 선호도가 높으므로 여건이 허락하면 소파를 두도록 권장한다. 부엌은 많은 노인들이 함께 식사하기 때문에 식탁보다 좌식 밥상의 선호도가 높으므로, 출입이 편하게 개방성을 주도록 권한다. 화장실은 세면대와 욕조의 설치에 대해서 선호가 비교적 비슷하거나 상관없다는 응답이 높았다. 그러므로 세면대 설치를 권장하며, 욕조는 그 실의 면적에 따라 설치여부를 정하도록 바란다. 그러나 화장실에 단차제거, 보조손잡이 설치 등은 이루어지기를 권장한다. 시설의 설치 위치는 마을중심 선호가 가장 높고, 집에서 멀지 않는 곳을 선호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노인들의 이동에 어려움이 없는 곳에 설치되기를 권한다. 또한 이곳에서 취사와 여가, 휴식과 숙박까지 기대하는 노인이 있으므로 지역 독거노인들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이용시간 및 운영형태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보완한 계획이 필요하였다.

## 5. 결론

위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첫째, 조사 대상 6개 시설의 경우, 각 시설의 평면형태, 건축면적, 실별 면적비율, 설치가구와 기기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공동생활시설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으므로 설치가이드라인 없이 지어지고 있는 결과로 보였다. 그러므로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공동생활시설의 지역별 설치기준을 통해 바람직한 가이드라인 지침이 마련된다면 보다 더 독거노인들의 이용에 알맞은 공간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자체별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독거노인공동생활 시설은 각 지역마다의 특색이 있고, 노인들의 이용행태가 다름을 인지하여, 그 지역과 문화 그리고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이용행태 등을 고려하여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노인공동생활시설의 공간구성과 이용실태 분석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공간 형태, 바닥높이, 창 높이와 면적, 가구종류와 수 등이 시설별로 차이가 있는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점들이 지적되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으로 노인들의 희망과 이용행태에 적합한 시설이 늘어나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에 대한 조사로 이 결과를 모든 지역 적용에는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이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을 확대한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이 연구의 의의는 그간 가장 부족했던 노인공동생활시설의 실내공간구성과 이용자의 이용실태 파악을 통해 실내공간에 대한 선호도를 밝힌 것으로 앞으로 폭넓은 심층조사를 기반으로 독거노인의 요구에 부합된 시설 설계안과 함께 법적기준과 가이드라인을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경기도 홈페이지, [www.gg.go.kr](http://www.gg.go.kr)
2. 건축법 중 노인복지법, <http://www.law.go.kr>, 2014.4.5
3. 남윤철, 농촌지역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사례와 개선 방향,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4권 2호, 2012.5
4. 문자영, 신경주, 경기도 지역 '카네이션 하우스'의 공간현황 및 특성,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6권 2호, 2014.11
5. 박현춘, 김승근, 박광범, 농어촌 독거노인 공동생활주거 실태조사 연구-충남지역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 제13권 2호, 2011
6. 안경운, 노인그룹홈의 운영과 생활환경에 관한 연구 -전주시와 나주시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8권 4호, 2009.8
7. 유병선, 김나연,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경기복지재단, 2014.1
8. 이기용, 손승광, 농어촌 독거노인 공동생활 조사 연구, 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4권 2호, 2012.11
9. 조원석, 김흥기, 농어촌 독거노인의 공동주거 선호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3권 4호, 2011.11
10. 조원석, 유영모, 강릉양양지역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공동거주에 대한 태도분석의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2011.
11. 조원석, 농어촌 독거노인의 공동주거에 관한 건축 계획적 특성 연구-농어촌 독거노인을 위한 친환경 공동주거의 모형 개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제 14권 2호, 2012.
12. 아시아뉴스통신, <http://www.anews.com>, 2013.11.28
13. 웰페어뉴스, <http://www.welfarenews.net>, 2010.5.22
14. 통계청 홈페이지, [www.kostat.go.kr](http://www.kostat.go.kr), 2014.4.5.

[논문접수 : 2014. 12. 31]

[1차 심사 : 2015. 01. 26]

[2차 심사 : 2015. 02. 06]

[게재확정 : 2015. 02. 13]